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10. 19.(수) 16:00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책임자	과 장 임성순 (044-200-5950)
		담당자	사무관 이주연 (044-200-5955)

송상근 해수부 차관,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참여

- 안전체크海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 직접 점검, 관계자 안전의식 강조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19일(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하반기 항만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21일(수)부터 10월 21일(금)까지 부산항 신항 등 올해 국가관리 항만에서 시공 중인 총 46개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중이다.

송 차관은 오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인 “안전체크海**”를 이용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발주) 평택지방해수청 (사업비) 1,175억원 (공사 기간) '18.5.~'23.6., (시공사) 동양건설산업 외 2개사

** '22.6월 도입 현장점검 시 모바일로 점검내용 즉시 통보→발주시공감리자 동시 확인 및 즉시 조치

송 차관은 현장에서 “항만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미흡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발주자, 시공자와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기술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